

하루 바빠 '개벽' 시대

[별건곤] (1929년 7월호)

(주: 이 글은 [별건곤] 창간 십주년 기념 축하임)

나는 이즈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여 드릴 형편이 못되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진 풍파와 마주 싸워 십년간을 꾸준히 분투노력하셨다는 것을……. 그리하여 십주년 기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축하며 앞으로는 한시라도 바빠 '개벽' 시대와 같이 되기를 바라마지 아니합니다. (나보다도 물론 여러분이 더욱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일상 앞서 잡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개벽사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이야기려니와 개벽사에 여러분의 불굴하고 꾸준히 싸워나가는 노력이며 지면이 넘치는 성의를 감탄치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탁할 것은 앞으로도 전보다 더한 노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